

고품질 발전 향해 달리는 중국 향촌 전자상거래



흑룡강성 요하현 농민 로전개 (앞줄 가운데)가 라이브 방송으로 쌀을 판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중국 향촌 진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초창기 향촌-도시간 배송이 주를 이뤘던 향촌 전자상거래는 이제 디지털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며 향촌산업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 깊은 산속에서 35살에 나는 농민 로전개는 주민들과 함께 동영상을 자주 촬영한다. 3천여개에 달하는 그의 숏클립에는 중국 동북지역 숲의 풍요로움이 담겨 있다. 그는 영상을 통해 고향인 흑룡

강성 요하현의 우수한 특산품을 전국에 소개하고 있다. 요하현데이터전자상거래발전센터 등화군 주임은 지난해 요하현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0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97%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가상무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사무실 등 9개 부문은 최근 공동으로 <향촌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약 100개의 향촌 전자상거래 '리더현', 약 1천개의 현역 디지털 류통 선도 기업, 약 1천개의 현역 리

이브 방송 전자상거래까지, 약 1만여 명의 향촌 전자상거래 리더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지 건설, 디지털 소비 환경, 물류 시설 및 배송, 산업사슬, 이색 브랜드, 판촉 행사 등 10여개 분야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류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서비스 효율이 높은 향촌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네티즌수는 10억명 이상, 5G 보급률은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 향촌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2.49조원에 달

했다.

흑룡강성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손호진 소장은 향촌 전자상거래가 농산물 거래 방식에 혁신을 가져다줬다며 공산품이 향촌으로 류통되고 농산물도 도시로 판매되도록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손호진은 이를 통해 도농간 요소 이동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공급측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중국 중남부 산간지역 무릉산맥 가운데 위치한 호남성 상서투자족족자치주 고장현은 인구가 14.3만명에 불과하다. 호남성에서 인구가 가장 적지만 이곳에서는 전자상거래 향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독자수 100만명 이상의 향토지역 왕홍을 육성해 구장현 특산물 판매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장현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1.1억 원을 기록했다.

호남성상무청 전자상거래처 류혜처장은 최근 수년간 농산물의 도시 판매 루트 확대에 힘썼다면서 라이브 방송 전자상거래업체,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업체 등 산업종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성 향촌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했다. 그중 농산물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14.48% 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향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인 리국상은 전문 인력 부족이 향촌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 중 하나였다고 하며 "약 1만 명의 향촌 전자상거래 리더 육성은 국가적 차원의 인재 지원 정책"이라면서 "시장 역량과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입어 중국 향촌 전자상거래는 더 넓은 발전 공간을 얻으며 고품질 발전의 길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화넷

우리 나라 향촌 건설 장인 양성과 관리 강화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일전 <향촌 건설 장인 양성과 관리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향촌 건설 장인 훈련 및 관리 사업기제를 구축하고 완벽화하며 장인들의 기능 수준과 종합자질을 제고시키고 향촌에 뿌리를 내리고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장인 대오를 육성하여 농가의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이고 향촌 건설 행동을 전면 실시하는 데 유력한 인재 버팀목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2025년까지 장인 직업 체계, 직업표준체계, 훈련심사평가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장인들의 기능 양성과 대오의 육성관리 사업을 일층 규범화하여 농가의 품질 안전 수준이 보편적인 향상을 가져오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35년에 이르러 장인 대오 구조가 일층 최적화되고 장인들의 기능 수준과 종합자질이 대폭 향상되며 장인 양성과 대오의 육성관리 사업기제가 기본적으로 완벽화되어 장인이 농가와 마을 건설의 중요한 인재 버팀목으로 되게 할 것을 요구했다.

/ 농민일보

연길시 60명 향촌진흥 전문기술인재 직함 획득



길림성 향촌진흥 우수인재로 선정된 연변국봉삼업유한회사 리국봉 (오른쪽 첫 번째) 사장이 연길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사업일꾼들에게 회사의 경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연변국봉삼업유한회사를 방문하여 길림성 제 2진 향촌 진흥 우수인재로 선정된 리국봉에게 증서와 길항카드를 발급하였다.

2021년 길림성 향촌진흥 우수인재 선발과 길림성 향촌진흥 인재 직함 평가 업무를 실시한 이래 연길시에서는 60명이 길림성 향촌진흥 전문기술인재 직함을 획득하고 2명이 향촌진흥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길항카드를 발급받았으며 3년 동안 향촌진흥 인재 직함 보조금 14.3만 원을 지급했다.

/ 김령혜

연변 여러가지 조치로 벼 생산량과 품질 제고

근년에 들어와서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새 품종 도입과 새 기술, 전간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벼 생산량과 품질 제고에 나서고 있다.

도문시, 퉁정시, 화룡시, 훈춘시 등 4개 시에서는 9호의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선정하여 170헥타르의 벼재배시범기지를 건설하였다. 당시 농업부문에서는 26개의 주요 벼품종을 선정, 보급하고 재배 과정에서 비료를 분쇄하여 눈에 다시 내고 령해를 방지하며 질소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림비료를 증가하며 토양 성분을 측정하여 그에 알맞는 비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100%에 달하도록 하였다.

4호의 경영주체를 지정하여 전 성 벼재배 고산출 경연에 참가하도록 하였는데 헥타르당 수확량이 2만 1,371근에 달해 길림성 동부지역에서 '연변팀'이 3등을 하였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증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과학적으로 시비하도록 지도하였으며 13개의 통일관리융합시범구를 건립하였다.

료해한 때 따르면 2023년 연변의 벼 재배면적은 50.16만무에 달했으며 그중 록색유기벼 재배면적은 16.5만무, 벼 생산량은 23만톤이었다. 록색유기 벼입찰 인증 기업은 56호로 집계됐다.

/ 길림일보

해남 '남번기지'에서 펼쳐지는 신품종 · 신기술 · 신모식의 현대농업



국가현대농업 (중업) 산업단지에서 재배중인 신품종 벼

봄을 맞아 해남성 삼아시에서 벼, 옥수수 등 남번(南繁, 여름작물인 벼, 옥수수, 목화 등을 가을에 수확한 뒤 겨울 동안 해남성에서 추가 번식하는 바이오산업) 작물 재배로 바쁜 풍경이 연출됐다. 삼아시 애주구에 위치한 국가현대농업 (중업) 산업단지에서는 전국 200여개 육종기관에서 보내온 2,300여개 농작물 신품종이 일꾼들의 정성어린 관리하에 건설하게 성장하고 있다.

크기는 땅콩 만한데 캡사이신 추출이 가능한 아주 매운 고추 품종, 앵두나 딸기 맛이 나는 도마도... 이곳에는 시장에서 보기 힘든 '새롭고 신기한' 품종들이 가득하다. 국가남번작물연구시설내 시험전에서는 1천여포기의 옥수수, 콩 육종 소재가 자라고 있다. 높이가 5.7미터, 길이 21미터에 달하는 식물을 탑재한 플랫폼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레이저 레이다, 초분광 카메라, 각종 센서 등을 활용해 육종 소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살

이 검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송출돼 연구진이 컴퓨터에서 바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한다.

연구진은 작물의 각 표현형 특징을 기록, 분석한 후 우수한 자원을 선별해낸다.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엔 수십키로그램의 장비를 일일이 메고 밭을 돌아다니며 직접 관측해 데이터를 뽑아내야 했으나 이제는 한번에 대량의 샘플 유전자서열을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처리기술, 스마트화 장비 덕분에 효율은 물론 데이터의 정확성 또한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새로운 육종 모델 개발은 종업산업사슬 연결 및 육종 효율 제고로 이어진다. 애주구 남번시험기지의 한 하우스에서 벼모가 푸릇푸릇 자라고 있다. 이곳에서는 과학연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패말로 구역을 나눈 후 정해진 구역에 따라 각기 다른 벼품종을 심었다.

/ 신화넷

이곳 책임자는 10여개 종업기업을 대신해 50여종의 우량 벼품종을 키우고 있어 기업 관계자가 해남을 오갈 필요가 없어졌다며 여기서 1년 동안 육종한 벼종자가 600만무에서 800만무에 달하는 눈에 종자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삼아시농업농촌국 관계자는 삼아는 종업림상시험수탁 (CRO) 서비스 모델을 발전시켜 남번실리온밸리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업림상시험수탁은 종업기술 사슬의 각 환절을 전문화에 따라 세분하여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전반 산업사슬의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애주구 남번서비스센터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각종 시험전의 온도, 습도, 병충해 상황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있었다. 이곳 책임자가 남번 공유 용지 서비스 플랫폼을 열어 구획을 클릭하자 면적, 임대료, 수리시설, 도로시설, 토양 비옥도 등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됐다. 또한 'VR' 기능으로 해당 토지를 3D 영상으로 둘러볼 수도 있었다.

한편 이곳에서는 정책적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가 남번실리온밸리 건설계획 (2023년-2030년)>에 따르면 남번실리온밸리는 2030년까지 구축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과학연구, 생산, 판매, 과학 기술 교류, 전시 전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에서 40년 동안 육종사업에 종사해온 중국과학원 전전원사는 "향후 남번실리온밸리가 종업 혁신의 '집산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 종업 혁신을 이끄는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을 대거 유치해 종업 혁신을 위한 중대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일체화 종업 혁신발전 시스템을 활발하게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산툰진 자동촌 70세 로인 '직장인'으로 변신



공기름가공공장에서 기름을 짜고 있는 70세 '직장인' 교유현

아침식사를 마친 퉁정시 개산툰진 자동촌의 교유현은 삼륜차를 몰고 출근길에 올랐다. "저같은 70세 로인도 '직장인'이 되어 바로 집앞에서 돈을 벌 기회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라고 말하는 교유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삼륜차로 5분 거리인 자동촌 공기름가공공장에 도착한 교유현은 두 '직장인'과 함께 기계를 닦고 콩 상태를 점검하며 공기름을 짜기 위한 사전 작업을 펼쳤다. 퉁당지부 서기 우홍파가 공장에 도착한 뒤 착유기가 본격적으로 작동했다. 교유현은 "선별한 콩을 기계에 쏟아 부은 뒤 기름을 짰다. 이곳에서 일하는 기간 주로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를 주시하는 외에 기타 잡일을 하는데 크게 힘이 드는 일은 없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 100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1.6무 면적의 밭이 교유현의 유일한 수입 원천이었다. 젊었을 때 그

는 하우스에 남새를 재배해 판매했는데 이젠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땅을 남에게 임대해 주었다. 자동촌 공기름가공공장은 2023년 7월 20일에 설립되어 2023년 12월에 시운행에 들어갔으며 20만원의 설비 투자로 3가구를 도와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퉁당지부 서기 우홍파는 "공기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3명의 일꾼은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인 빈곤해탈호거나 빈곤해탈 검측호입니다. 공장에서는 하루 2,000킬로그램의 콩을 가공하고 130여킬로그램의 공기름을 생산하는데 한해 6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재료는 모두 개산툰진의 콩을 사용하는데 그중 85%는 자동촌 촌민들로부터 구매합니다. 현재 자동촌은 태양광발전, 유기비료공장 등 산업 대상으로 한해에 48.2만원의 촌민체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 연변조간